

5/24(화) 에스더 묵상 13

에스더 8:15-1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어명대로 모르드개가 높은 관직에 앉게 되고 유대인들은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모르드개의 영광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15절,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겹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가 머리에 쓴 금관과 화려한 옷에 대한 자세한 표현은 모르드개가 왕으로부터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높임을 받았는지를 엿보게 합니다. 특히 모르드개는 왕의 호출이 없이 그가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15절의 표현이 모르드개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중에 타국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총 세 명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발사살, 그리고 바사 왕 다리오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모르드개의 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은 일개 소수 민족에서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16절,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비록 에스더가 먼저 왕후가 되었지만 당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서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한국의 경제와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 한인들의 위상과 심지어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인정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높여주신 것은 단지 그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에 4: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전에 모르드개의 고백처럼 에스더의 자리는 민족을 위한 더 크고 심오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성공하는 것을 단지 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성공하기 전에는 많은 이들이 겸손한 마음을 잘 유지합니다. 하지만 성공하게 되면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겸손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삼상 10:22,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하지만 사울은 점차 변질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잠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림절

왕의 어명이 페르시아 전역에 전파됩니다. 왕의 어명이 떨어지자마자 이 일은 신속하게 전달됩니다(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같은 시급성은 아마도 왕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까지 페르시아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한 번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유대인들에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명절이 되었습니다(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 일로 인해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할례를 받고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비록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페르시아에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계중에는 단지 자신과 가족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로 하여금 몇가지 적용을 하게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세상처럼 부족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하고 성숙한 신자들만 모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 신자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늬만 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성숙한 신자들로 바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전세계 기후를 위한 기도:** 4월 11일 다국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세계기상속성(World Weather Attribution: WWA)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엄청난 규모의 열대 폭풍과 사이클론이 남동 아프리카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및 주변 지역을 강타해 많은 사상자와 함께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열대성 사이클론이 이미 농업 인프라와 생계,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지역의 기후 위험을 줄이려면 자국뿐 아니라 주변 배출국들의 탄소배출 완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 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특히 탄소배출 상위국들이 기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브랜포드 2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가나 양광군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